

社說

우리 대학 매력, 어디에 있는가

지난 4월27일, 본대학의 대학원 세미나실에서는 '대학 개혁 방안'의 하나로 "제주대학교 이미지 쇄신을 위한 연구"발표가 있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제주대학교에 대한 이미지를 분석함으로써 제주대학교가 구상하고 있는 장기발전계획을 학내 구성원 및 도민들과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보다 능률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본교 재학생의 경우, 고교생으로서 대학을 선택할 때 성적수준 때문에 제주대학교에 진학하였을 뿐 제주대학교에는 오고 싶지도 않았고, 현재 재학생으로서 제주대학생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도 않으며, 또한 학교 생활도 즐겁지 않다는 반응을 나타내었다. 막상 재학생들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대학에 대해 이처럼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본교생들이 특히 제주대학교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보인 것으로는 ①졸업후 취업 가능성 희박 ②연구에 필요한 실험기자재와 도서 미비 ③우수하지 못한 교수진 ④낮은 교수 확보율 ⑤장학금 제도의 미비 ⑥학생들의 학문연구 의욕의 불충족 등과 같은 내용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홍보활동을 통해 위 내용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타대학과 비교하여 긍정적으로 부각시켜야 하고, 동시에 재학생들로 하여금 집단소속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보면서, 제주대학교가 매력있는 대학으로 이미지를 제고하려면 제대인으로서 어떠한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우선 제주대학교의 현 실상을 언제나 있는 그대로 보고 알릴 수 있어야 한다. 본 대학이 제주지역에서는 유일한 종합대학이기 때문에 자칫 과장된 모습으로 비춰지거나 구성원들이 자만에 빠져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타인이 보는 제주대학교와 제주대학교에 몸담고 있는 구성원들이 보는 제주대학교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느 한 쪽은 제주대학교를 왜곡된 시각으로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홍보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대학을 상품과 비유해서 볼 때, 실제로 좋은 상품을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그 상품이 제수치를 못하거나, 반면에 불량상품을 만들어 놓고도 '빛좋은 개살구' 마냥 걸치려 선전으로 소비자들의 구매 충동만을 부추기는 경우가 있다면 어느 쪽도 바람직한 홍보는 아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제주대학교라는 상품의 판매 전략은 무엇보다 소비자들에게 진실되게 다가가야 할 것이며, 적어도 소비자가 선택하여 구매할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홍보와 더불어 이미 대학이라는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즐거움을 제공하는 일이 중요하다. 상품을 사용하면 얻는 기쁨이나 실감받은 소비자가 자신은 물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현재 제주대학교라는 상품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는 제주대학교에 몸담고 있는 8천여명의 재학생이다. 그리고 이러한 소비자와 직·간접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학부 및 지역 주민들을 고려한다면 예비 소비자의 수는 엄청나다. 연구 결과에서처럼 이미 구입한 상품이 자랑스럽지도 않고 사용하는 즐거움도 없다면 그 상품은 이미 효용가치가 없다. 그렇다면 구입한 상품의 효용가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생산자인 교수와 관리자인 행정직원의 역할이 어떠하냐에 달려 있다. 교수가 연구를 통해 학생들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알아내어 그들의 욕구에 적절한 상품을 제공하고, 행정직원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품 거래가 올바르게 형성되도록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 줄 때 상품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제주대학교가 매력있는 대학으로 발전하려면 생산자인 교수와 소비자인 학생, 그리고 관리자인 행정직원이 상호 조화로운 관계를 이룰 때 가능하다. 교수는 훌륭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학생들의 의식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욕구를 탐색하여 이에 적절한 상품 개발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열의를 보여야 할 것이고, 학생들은 교수들이 개발한 상품을 사용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를 함으로써 상품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직원은 상품의 전달과정이 보다 원활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교수와 학생, 그리고 행정직원은 시대의 흐름에 민감하게 대처해야 하며,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

“큰 사람이 돼야 하느니라. 德人이 돼야 한단 말이다”

無 論 有 說

萬里風來 山不動, 千年水積 海無量.

우리학교 학생회관 로비 중앙에 붙어있는 액자의 내용이다. 만리나 먼 곳으로부터 도운단기하여 불어오는 세찬 바람에도 산은 끄떡없고 천년이나 오랜 세월 동안 내와 강을 통하여 물을 쌓아 놓았어도 바닷물의 양은 변함이 없다는 뜻일 게다. 어디에 나오는 명문인지, 또 어느 분이 쓰신 글인지는 모르겠지만 참 좋은 뜻인 것 같다. 그리고 매우 마땅한 자리에 앉은 것 같다.

지금은 세월따라 보내드린 선친께서, 이 못난 자식을 사람 만들어 보시겠다고 항상 들려 주

시던 “나무는 큰나무 밑에 못살아도 사람은 큰사람 밑에 살아야 하는 법이다. 큰사람 주위에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지. 큰사람이 되어야 하느니라. 德人이 되어야 한단 말이다”는 말씀이 잊혀지지 않아서, 언제부턴지 모르게 정문과 예술관 사이를 오갈 때마다 학생회관 중앙 계단을 밟는 것이, 그리고 때마침 동행하는 제자라도 있을 땐 엉락없이 액자를 가리키며 마음에 새겨두라고 청하는 것도, 이젠 나의 버릇으로 자리를 잡았나보다.

어릴 땐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또 그 말씀이구나 귀찮게만 생각되던 ‘큰사람’ ‘德人’; 이제 세씩이나 되는 내 자신들과 매일 이 액자를 보며 생활하는 지천명의 나이줄에 앉아서야



장홍우

어렵듯이 이해되어 가슴 죄어드는 아픔과 죄송스러움을 안고, 반대의 뜻을 가진 단어들과 번갈아 가며 되뇌어 본다. ‘큰사람’ ‘덕인’ ‘소인배’ ‘졸부’...

사전적 의미로는, 소인배-간사하고 도량이 좁은 사람, 졸부-벼락부자로 되어 있다. 아마, 가진 것을 뽐내기에 바쁜 사람, 앉은 자리를 봉사의 자리가 아니라 누리는 자리로 생각하는

사람, 좀 아는 것을 자랑하기에 바쁜 사람들의 대명사로 쓰이는 단어인 것 같다. ‘소인배’... ‘졸부’... 큰사람이나 덕인에 비해 얼마나 작고 초라해 보이는가!

사랑하는 나의 젊은 아라인들아!

바람 큰 제주에서 억겁을 버티고 묵묵히 서있는 한라산자락에 서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4대륙의 큰 강으로 억겁을 쏟아 부어 놓은 남태평양을 발아래로 굽어보며 내일을 키우고 있는 사랑

하는 나의 젊은 아라인들아! ●배웠으려는 사람, 더 차지하려는 사람과의 사이에서는 경계심이 생기고 조건없이 주려는 사람과의 사이에서는 사랑과 믿음이 돌아난다.

●자신만을 위해 뛰는 생활에

는 경쟁이 크지만 남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생활에는 경쟁도 없이 먼저 얻는다.

●지는 게 바로 다른 채널을 통하여 힘들이지 않고 이기는 거란다.

사랑하는 나의 젊은 아라인들아!

때마침 일고 있는 세계화의 물결을 뛰어넘어 세계의 주역으로 자라야 할, 나의 사랑하는 젊은 아라인들아!

세계의 주인이 되기 위해 먼저 나 자신을 큰 사람으로 키워 나가자꾸나.

주인이 되어 가져야 할 이 커다란 세계를 사랑과 믿음이 넘치는 지상낙원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헌신봉사하며 나 자신을 좀더 큰 사람으로 키워 나가 보자꾸나.

萬里風來하나 山不動이요
千年水積하나 海無量이리나.
(음악학과 교수)

독자의소리

‘독자의소리’는 학내의 불합리하고 비민주적 요소의 개선을 바라는 목소리, 모순된 사회를 고발하는 가슴 뜨거운 목소리, 제대신로 기사에 대한 비판·격려의 목소리들을 담은 독자 참여공간입니다. 늘 열린 지면으로 여러분의 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간분량: 3매내외, FAX: 56-2204)

시설과에 묻는다

본관현관 자동문 설치 시급한 건지
실험·실습실 모습 직시했으면

요즘 사회적으로 제주도 농수산 분야에 대한 국고보조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될 가능성이 엿보여 도중합계발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예산문제로 인하여 벌어지는 문제들은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본관 현관문이 언제부터나 자동문으로 바뀐 모습을 보게 되었다.

전에 설치해 두었던 문도 별다른 문제없이 이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더욱이 떠도는 얘기로는 이 자동문을 설치하는데 수천만원의 비용이 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우리학교는 이공계 계열의 실습기자재나 학생복지에 대한 지원이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심지어 관선이 모자라 실습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는가 하면, 학우들의 컴퓨터 자리잡고 있는 휴게실의 의자나 컴퓨터의 벤치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런 작은 연구실실험장비와 복지시설 확충에 투자하는 것은 아깝고, 멋드러지게 본관현관에 자

동문을 설치하는 건 절실한 일인가? 한푼이 아쉬워 각 부서에서 긴급예산을 짜는 현 시점에서 자동문 설치가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대학의 본관을 굳이 화려하게 치장할 필요가 있는가? 과연 우리대학 현관문을 자동문으로 교체할 정도로 예산이 남아도는가. 시설과는 여기에 대해 분명한 답변을 해주기 바란다.

(고상미 경영2)

가래침 함부로 뱉다니
기본적인 양심도 없나

얼마전의 일이다. 따스한 4월의 정취를 느끼며 인문대학 뒷편 잔디밭에 앉아 친구와 담화를 하고 있었다. 날씨가 화창해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짝을 이뤄 봄의 싱그러움과 즐거움을 맡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바로 앞자리에 똥가가 떨어지는 것이었다. 처음엔 세의 분비물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3층 유리창에서 학생이 똥을 가래침이었다. 조금만 각도가 달랐어도 큰 봉변을 당할 뻔한 것이다. 잔디밭에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면서 함부로 그런 행위를 하니 무척 화가 났다. 교내 캠퍼스를 다니면서 누구나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휴지를 쓰래기통에 제대로 버리지 않는 건 예사고, 심지어 교실 바닥까지 가래침을 뱉으니, 함께 생활하는 공동사회에서, 최소한의 예의범절도 모르는 이가 많다는 데에 안타까울

뿐이다. 깨끗한 캠퍼스는 주인인 우리 학생들이 만들어가야 한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학교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선 먼저, 학생들이 학교사랑하는 마음에서 깨끗한 캠퍼스를 만들어가야 하겠다. 그중의 한가지 방법으로 모든 아라인은 균이 많아 각별히 처리에 주의해야 할 가래침을 아무데나 함부로 뱉지 말아야 하겠다.
(김윤미 중문2)

‘한총련 출범식’을 다녀와서

변혁향한 백만학우 열기 ‘후끈’
‘반미·조국통일’ 대책 미흡 아쉬워

제3기 한총련 출범식이 경북대에서 열렸다. 한총련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 아마도 일반 국민들에게는 과격하게 반정부·반미·조국통일 구호를 외치는, 한마디로 좀 위험한 조직으로 여겨질 것이다. 아직 신입생이나 역시 평소 학생운동을 철저히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려 했지만 은연중에 학생운동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투쟁이니 쟁취니 이런 과격한 단어들

이 주는 거부감은 제쳐두고라도 학생들이 학생운동에 대한 뚜렷한 주관이나 확신없이 그저 막연한 허상을 좇는 것 같았다. 그리고 학생들과 전경들이 충돌하는 장면을 보면서 꼭 저런식으로 해야만 하는지도 의문스러웠다. 한총련 출범식에 다녀오기 전까지 학생운동에 대한 내 견해는 대강 이런 것이었다. 그러나 그곳에서 나는 다시 한번 내 무지와 편견을 확인해야만

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수많은 사실들을 하나씩 접할 때마다 학생들의 반정부·반미 구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고, 학생운동에 대한 나의 편견도 어느정도 없어졌다.

전야제와 출범식에서 각 지역에서 모인 수만명의 학생들이 하나가 되어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토록 많은 학생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고 하나로 묶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다. 그것은 아마도 분단이라는 특이한 민중현실에 대해서 진정으로 걱정하고 부정한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대항하는 젊은이들의 열정이 아닐까...

그곳에서 밤을 새우며 함께 노래하고 토론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왠지 모를 뿌듯함을 느꼈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웠던 점은 반정부·반미·조국통일 구호를 외치기만 할 게 아니라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나 대책방안을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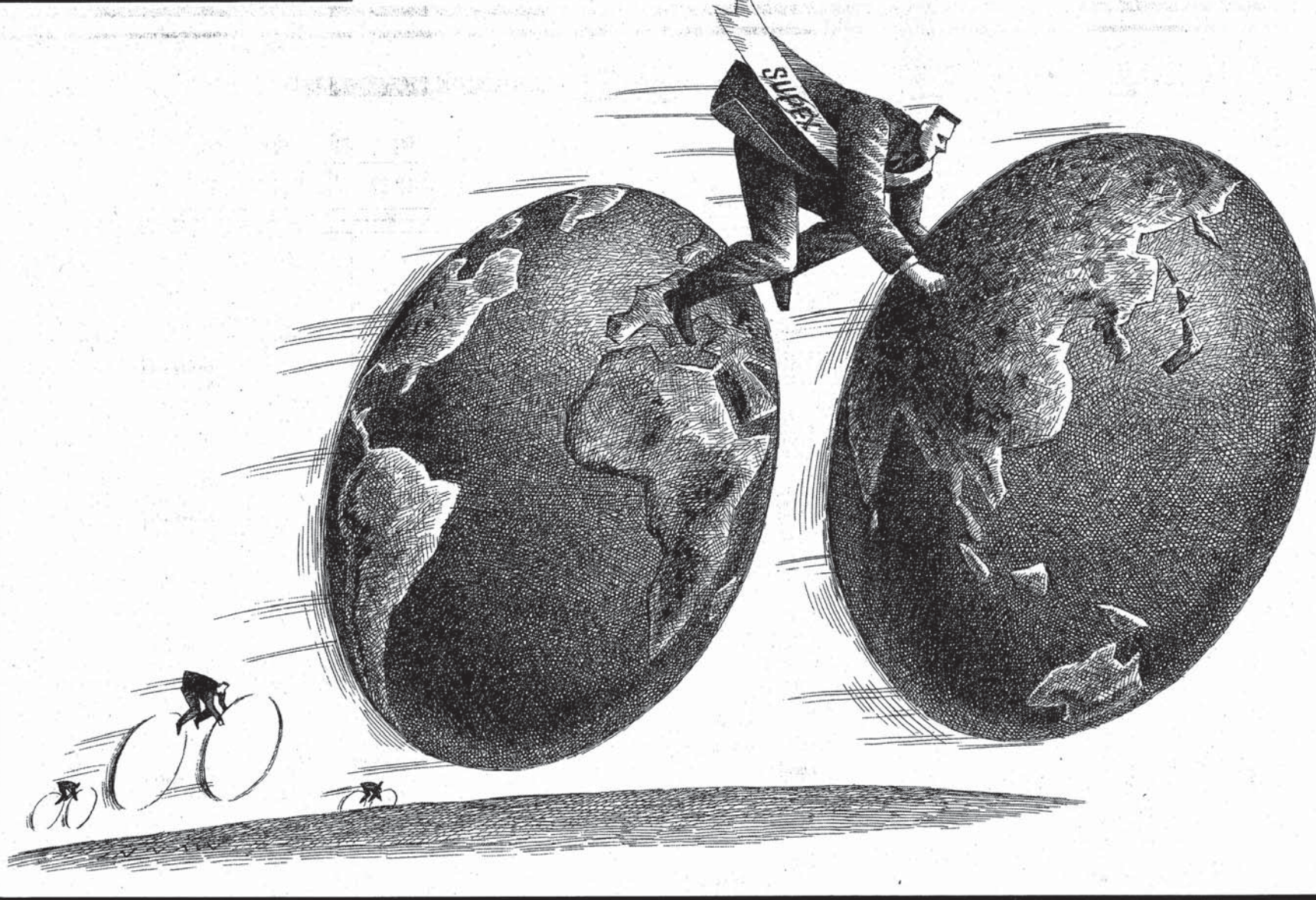
체적으로 제시해 줬으면 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외쳐대는 구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때 그런 구호들이 결코 허황되지않은 말을 것이다.
(박정인 영문1)

‘커닝’하는 학우들
부끄럽지도 않은가

얼마전에 중간고사가 끝났다. 홀가분한 마음과 함께 집집한 마음이 동시에 들었다. 시험을 준비하고 치르는 학우들이 모습가운데, 불쾌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열심히 시험을 준비하는 학우들이 있는데 커닝을 준비하는 학우들이 몇몇 있었다. 지식을 도둑질하고 자신의 양심을 파는 이러한 모습이 좋게 비쳐지지 않는다.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이런 일을 하기도 하고 커닝하는 방법을 서로 가르쳐 주기도 한다. 자신의 이런 행위를 그르친 생각도 하지 못하고 일순간의 이익만을 위해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행동을 자주 하게 되면 습관화되고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자신의 노력한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하여 얻게 된 결과에 만족하고 기뻐하기도 한다. 바꾸어야 한다. 자신이 정당하게 노력한 결과에 기뻐하고 실사 그 결과가 나쁘다하더라도 자신의 충분히 노력했다면 거기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올바른 행동을 하고서도 ‘너 혼자만 그렇게 잘났냐?’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 사회가 잘못된 것이다. 이런 부정행위를 하고서도 자기가 장학금을 받았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부럽기만 하다. 그러고서도 몇몇한 한 할 게 아니라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나 대책방안을 구

(김민선 컴퓨터교육1)

선경의 세계화 전략은 수펙스 추구입니다

수펙스 추구는
어려운 말도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개인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1등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1등이 앞으로 도달할 실력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을 목표로 노력해야겠지요. 내가 노력할 때 그도 손 놓고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업경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세계일류를 목표로 노력한다면 우리의 수준은 크게 올라가겠지만 그 세계일류도 계속 발전하게 되어 결국 그들과 겨루어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세계일류보다 더 높은 수준의 목표를 추구해야 경쟁우위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선경이 그간 수펙스를 추구해 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SUPLEX IS...
세계경쟁에 무한경쟁에 돌입하는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에서 확실한 경쟁우위에 서기 위한 선경 특유의 경영전략으로, 지금의 세계일류 기업들이 앞으로 도달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 즉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 (SUPER EXCELLENT LEVEL)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SUNKYONG
鮮京그룹

기획논단 **해방 50년과 한국의 과제(2) 일본문화 수용과 문제점**

외설·폭력성보다 패권주의의 획책 경계해야 주체적 수용 위해...탄탄한 민족문화 정립시급

1. 문제의 제기

일본문화는 유교문화의 주변성에 기인하여 후진성과 복합성을 면치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는 일본의 근대화에 유리하게 작용하였고, 철저한 일본주의를 형성하였다. 유교와 불교 같은 새로운 문화에 접목한 일본문화는 그들의 사정·요구에 적합하도록 수정된 것이었고, 서구문화에 접목하여서도 유연한 수용성을 가지며, 서구문명국의 문명기준을 성취해 나갔다. 그리하여 아시아의 모든 민족과 달리 정체성을 극복하고 일찍 근대화를 이룩하였다. 여기에 있어 일본의 문명·문화적 우월주의가 싹트고, 서구열강의 침략에 대비한 일본방어를 위해 대륙을 침

문제는 우리 스스로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현재 우리의 정서로 볼 때 일본문화의 수용문제는 일본문화의 속성이 어떤 것인가 하는 탐색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문제 즉 어떤 받아들여도 되는가, 아직 시기상조인가 하는 결론론에 머무르고 있다.

2. 일본문화의 虛와 實

일본은 문화적 포용력을 갖고 이질적인 것의 통일을 모색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문화를 종합·흡수했다고 여기고 있으나, 사실 단순하게 권위주의적이고 무반성한 절충·혼합 상태로 타락할 위험이 적지 않다. 그렇기에 많은 이들은 도대체 일본문화의 정체가 존재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현재 일본의 문화라는 것이 서구의 문화를 조악하게 결합한 형태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나라에 비정상적인 통로를 통해 유입되는 것도 또한 외래문화의 일본 경유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현재 우리가 수용여부를 고민하는 대상은 일본의 상업주의 문화다. 일본의 문화전반에 관한 것은 후차적 문제인 듯하다. 우선 경계의 대상이 되는 상업주의 문화의 표본은 폭력·외설문화이다.

일본의 性문화는 독특하여 심지어 종교의 세계와 성을 결합하기도 한다. 불교에서 '적멸이 기쁨'이라고 한 데 대해 인도와 중국은 세속적인 번뇌의 부정으로 해석하는데 반해, 일본은 性愛的 극치로 해석한다. 이런 사유는 정신적 침잠(沈黙)의 엑스터시를 격정의 엑스터시로 보는 오류를 낳기도 한다. 우리에게 생소하고 이질적인 요소이지만, 우리 문화의 곳곳에서도 性愛的 극치를 법적으로 묘사하는 점을 본다면 이미 여과장치를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다. 다양한 일본의 외설문화는 우리의 도덕적 관념을 파괴시키는 점도 있었지만 상당 부분은 우리의 관습에 의해 정화될 것이고, 이미 익숙하게 대처하는 부분도 있다. 수용 초기에는 호기심의 대상이 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며 혐오의 대상이 될 것이다. '비디오란 기계가 우리에게 상투하였을 당시에 이 기계는 '음란물'이란 대명사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본래의 문화적 본분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본다면, 일본의 외설문화도 그리 걱정할 것이 못 된다.

일본의 폭력문화는 영주를 위한 의리, 위계적 신분관계 중시의 주종관계라는 사유를 바탕으로 하여 무인의 복수를 주 내용으로 한다. 우리 문화에서 무나 칼을 숭상하지 않는 점과는 매우 다르다. 결국



◇피리와 노래소리에 맞추어 디자인 기구라 춤을 추고 있는 일본인들.

일본의 폭력문화가 우리에게 충격이 클 테지만, 이것도 또한 헐리우드나 홍콩영화의 폭력물을 겪으며 완충장치를 가질 만큼 겪어냈다고 하겠다.

일본을 경제대국으로 이끈 원동력은 문화전반에 내재한 건강하고 합리적인 사유체계일 것이다. 우리는 겉자부리의 인도적이고 평화적인 문화를 통해 일본의 양심적 지식을 접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인은 국가를 중시하는 경향과 천황숭배의 경향을 갖고 있는데 이는 반인도적이고 공격적인 문화의 속성이다. 국가를 중시하는 경향은 근대화 IC사이에 정치경제적으로 세계 역사에 등장한 원동력이 되고 전후 복구가 가능했던 것도 이 사유에서 기인하며, 패전 후 오늘날까지 천황은 일본국민 통합의 상징적 의의를 갖고 있다. 이런 사유체계가 일본의 신 파시즘적 속성을 부추기고 있다.

일본이 몇 개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 동남아 지역을 가시청권으로 하고, 문화적 침식을 기도하며 문화적 도박을 기반으로 정치·경제적 패권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이 이 신 파시즘적 속성과 일치한다. 정작 우리가 경계하여야 할 부분이란 폭력·외설문화라기보다는 국가를 중시하고 천황을 숭배하는 사유 속에 감추어진 파시즘적 사유와, 과거 지배의 향수가 남아 있는 동남아, 더 나아가 아시아를 향한 패권주의라 하겠다.

3. 우리의 수용 태도

일본문화 수용문제를 두고 우리는 크게 두가지 태도를 보인다. 우선은 대중들이 문화의 충격을 흡수할 정도로는 덜 성숙하였기에 부분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는 입장이고, 우리 대중들은 일시적 혼란을 느낄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취사선택하며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보다 첨예한 문제는 우리의 일본에 대한 정서에 있다. 아직도 한반도를 '일본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비수'로 생각하는 일본의 의식, 여러 역사 문화 서술 속에서 한국문화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태도, 조선은 일본의 속국이었다는 인식, 식민통치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하지 않는 일본의 태도에 우리는 불쾌해 한다.

하지만 우리가 일본을 향해, 우리를 일본의 경제대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줄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평소 국민감정의 연장선상에서 일본을 비판·경멸하는 것을 벗어나 제2차 세계대전의 패배를 인정하고, 문화침략의 냉정한 노력이 필요하다. 어차피 건너야 할 강이고, 이 문화의 강은 오히려 일본 경유의 세계문화가 종합·흡수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공격성이 강한 소가리를 담수하여 기르니 약 10대의 세대에 이르러 그 공격성이 사라져 양식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한다. 식민지 시대를 살며 식민사관의 열등감을 가진 제1세대와 그들의 배우며 서서히 식민사관을 떨쳐 가는 제2

세대 뒤로 공격적인 열등감을 벗어난 제3세대가 등장하고 있다. 사대주의와 당쟁 그리고 지배층의 부패와 무능력을 질타하며 민족의 약점 들추기, 조상의 약점 들추기에 급급하던 문화인식을 서서히 극복하고, 민족문화를 하층의 건강하고 질박한 문화와 상층의 정제되고 세련된 문화의 통합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새로운 세대는 기실 문화적 열등감에서 벗어나 문화적 대등관계를 인정하고 일본문화 수용에 자신있는 태도를 취한다. 새로운 세대가 규범적 문화에 대한 반감

으로 일본문화 혹은 일본경유의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에 능동적인 점은 비판의 여지도 없다. 다른 한편으로는 열등감의 탈피라 하겠다. 언젠가는 일본의 문화전반을 능동적으로 접할 세대인 것이다.

4. 마무리

일본은 그네들이 우리의 조공품과 김연자를 수용했던 것처럼 그네들의 문화를 개방하라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일본은 근본적으로 한국문화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일본문화를 수

용한다면 머지 않아 일본을 능가할 수 있을 것이고, 오히려 그들의 상업주의의 천박성이나 파시즘적 획책을 유연하게 대처하게 될 것이다. 일본의 경제력을 등에 업은 일본문화의 위력은 대단한 것이고 얼마 동안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야 할 것은 중국의 재등장이고, 중국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할 태세를 갖추는 것이다. 동양문화의 보편성과 각국의 특수성을 미리 분석하고 검토하여 우리의 문화가

지향해야 할 점을 진지하게 고려할 때 민족문화는 외압을 견디는 강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작금의 우리 문화는 전통을 재인식하며 기지개를 켜고 있다. 하지만 '남을 배려하지 않는 문화'라는 속성 없는 문화의 속성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남의 문화를 위할 수 있겠는가. 우선은 우리의 천박한 문화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우리의 경박한 삶의 자세부터 '문화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 다시 한번 문화를 여며야 한다.

『Wireless World』라는 전문지에 적도상공에 있는 외관상 정지된 3개의 '우주정거장'에 의해 전세계에 동시에 텔레비전방송, FM통신으로 연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클라크의 발상이 1970년대 이후의 통신위성의 실용화로 결실을 맺었으며 그 결과 오늘날 세계가 동시에 같은 정보로 연결되는 '지구촌'으로 변화된 것이다.

또한, 전후인 1956년에는 대서양의 해저가 전화케이블로 연결되어 실용적으로는 해저케이블에 의한 유선전화가 전후의 국제통신의 주류가 되었다. 최근 국제전화기 시내전화와 거의 같은 정도로 깨끗하게 들리게 되었다고 해서 통신위성의 정도가 더욱 향상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은 '소리'가 아니라 '빛'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는 일반 국제통신에 통신위성이 사용되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대신에 통상 사용되고 있는 것은 해저케이블 그 것도 대용량의 광케이블이다. 광통신의 미디어가 레이저광선이라고는 하지만 전송하고 있는 사이에 빛의 힘은 점점 쇠퇴한다. 그래서 장거리 전송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빛을 증폭시킬 필요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는 광신호를 일단 전기신호로 돌려 그것을 반도체로 전기적으로 증폭하는 방법을 쓰고 있으나 앞으로는 빛을 그대로 증폭하는 광증폭기를 연구하고 있으며 또한 빛을 장거리 전송할 수 있는 연구도 하고 있다. 그것은 빛의 파장으로서의 성질을 이용해서, 전파와 같이 빛의 주파수와 위상에 음의 정보를 실어 광케이블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또한 교환기술도 현재는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으나 조만간에 광교환 기술이 확립된다면 보다 빠르고, 고품질의 통신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실현되면 태평양이 모두 빛으로 묶이게 된다. 아니 빛으로 묶인 '지구촌'이 출현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발발해온 통신환경은 광섬유 매체로 한 컴퓨터통신을 중심으로 통합한 경향을 구축하게 되며 이를 광대역 종합통신망이라 한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정부에서는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2015년까지 '정보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합한 발걸음을 시작하였다. 이는 광케이블을 중심으로 한 종합 정보시스템의 구축으로써 각종 해저 광케이블의 중계지인 제주는 타 지역에 비해 우수한 통신시설을 갖추고 있어 '빛'의 시대인 21세기에는 정보통신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통신공학과 부교수)

과학이야기



임재운

정보통신의 환경변화



허남춘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락해야 한다는 대륙광학론·조선침략론이 대두한다. 즉 잔치상의 제물이 되기보다는 잔치상의 제물을 즐기는 손님이 되겠다는 아시아에 대한 우월의식이 엿보인다.

서구제국주의의 식민통치가 민족보존을 인정하고, 직접적 독립운동이 아닌 한 민족문화운동에 대해 방관적 정책을 취한 반면, 일본은 철저한 민족말살정책을 폈다. 약탈하고 잔혹한 것이었다. 그 후로는 제국주의의 자기반성이 있었지만 일본은 그 반대방향으로 나아갔고, 근자에도 식민지 지배의 정당성을 운운하고 있다. 식민통치의 이름을 지금도 지을 수 있다. 거기에 덧붙여진 큰 시련은 분단고착과 자기혐오의 식민사관이다.

"사대주의의 미몽과 당쟁 및 민중수탈의 고질화된 폐습을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끝내 민족사의 일시적 단절을 초래"했다는 견해는 근대사의 비극의 근원을 '일본제국주의의 외설문화'로 보는 오류를 낳았다. 이 피해의식과 자기혐오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일본·일본문화는 부정·비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본문화의 악랄성·잔혹성·공격성에 대한 우리의 반감도 문제이지만, 더 큰

1994년도 소비조합 결산 공고

1994년도 제주대학교 소비조합 수입·지출결산 주요내용

대 차 대 조 표

손 익 계 산 서

1. 매출총액	1,614,720,500원
2. 매출원가총액	1,199,783,346원
3. 사업수익총액	414,937,154원
4. 비용총액	411,776,168원
5. 사업외수익	43,202,245원
6. 사업외비용	1,051,245원
7. 당기순이익	45,311,986원
8. 전년도 이월이익잉여금	765, 337원

위와 같이 공고 함.

1995년 5월

제주대학교소비조합이사장 고 장 권

과목	1994년 3월 1~1995년 2월 28일까지	1993년 3월 1~1994년 2월 28일까지
1. 매출총액	1,614,720,500	1,199,783,346
2. 매출원가	1,199,783,346	1,199,783,346
3. 사업수익	414,937,154	414,937,154
4. 비용	411,776,168	411,776,168
5. 사업외수익	43,202,245	43,202,245
6. 사업외비용	1,051,245	1,051,245
7. 당기순이익	45,311,986	45,311,986
8. 전년도 이월이익잉여금	765, 337	765, 337

과목	1994년 3월 1~1995년 2월 28일까지	1993년 3월 1~1994년 2월 28일까지
1. 매출총액	1,614,720,500	1,199,783,346
2. 매출원가	1,199,783,346	1,199,783,346
3. 사업수익	414,937,154	414,937,154
4. 비용	411,776,168	411,776,168
5. 사업외수익	43,202,245	43,202,245
6. 사업외비용	1,051,245	1,051,245
7. 당기순이익	45,311,986	45,311,986
8. 전년도 이월이익잉여금	765, 337	765, 337

선거 꼭 참여하겠다—50.5%… 공약·정책보고 투표—58.9%

진보학생모임 지자제관련 설문조사 결과

진보적 삶을 실현하는 학생모임 (의장 고승남 법 4)에서는 지난 4월 우리대학 학생총선 1학년 37명, 2학년 1백명, 3학년 1백40명, 4학년 96명을 대상으로 '6·27지방선거'에 따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지방자치체현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풀뿌리 민주주의다 46명 (12.3%) △민주심참가자 54명 (14.4%) △지방자치주의 본권이냐 23명 (6.15%) 등으로 나타났다 △무응답자가 1백25명 (33.42%)이나 돼 지방자치제에 대한 학우들의 인식결과와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4대 지방선거 중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선거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44.4%) △금강·관천선거의 추방을 비롯한 공명선거정착(25%) △자신이 속한 지역의 회의원은 누가될 것인가(10.1%) △지방단체장은 누가 될 것인가(19.7%)로 나타나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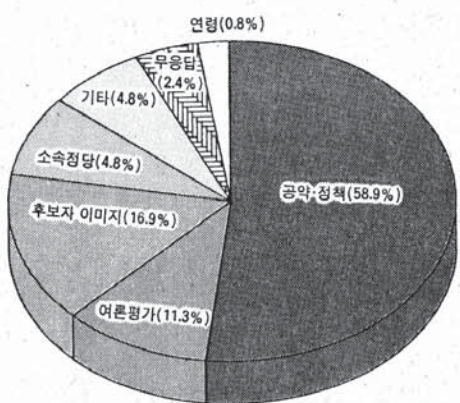
4대 지방선거 투표에 참여하겠다는가에 대한 질문에 △반드시 한다(50.5%) △투표가치가 있으면 한다(41.1%) △안하겠다(4.8%)로 나타났다.

선거에 참여한다면 ▲투표할 후보자의 선정기준에 대한 질문에는 △공약·정책(58.9%) △후보자 이미지(16.9%) △여론평가(11.3%) △소속·정당(4.8%) △경력·학력(0%)으로 나타났으며 ▲후보자 선택에 있어 자신의 주관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전적으로 자신이 판단한다(30.6%) △자신의 판단·주위(여론)평가(63.7%) △주위평가(2.7%)로 응답해 과반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11%에 해당하는 학우들이 투표할 가치가 없으며 한다는 반응을 보여 이들의 투표여부나 투표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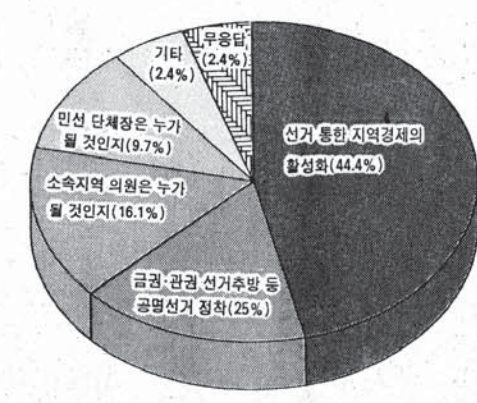
후보자에 있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정치성향에 대해 △진보적인 성향(54.8%) △중도성향(19.4%) △정중치성향이 없어야(17.7%) △보수적 성향(1.6%)으로 나타났다.

연고에 의해 투표한 경향이 있다면 어느부분에 영향을 받았는지에 질문에 △친연(4.8%) △혈연(4.8%) △친분(7.3%) △무응답(68.5%)로 나타났으며 ▲민선단체장이 갖추어야할 자질은 △주인의 함의와 협력에 의한 주민통합력 △형성능력 △정치적 능력 △기업의 경영능력 등의 순으로 나타나 정치를 잘 한다든지 경영능력 보다 는 주민과의 통합력을 가장 큰 자질로 생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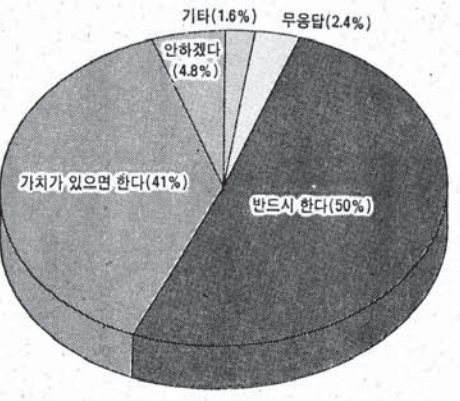
가장 적당한 민선단체장의 연령
에 대해서는 ▲45~49세(3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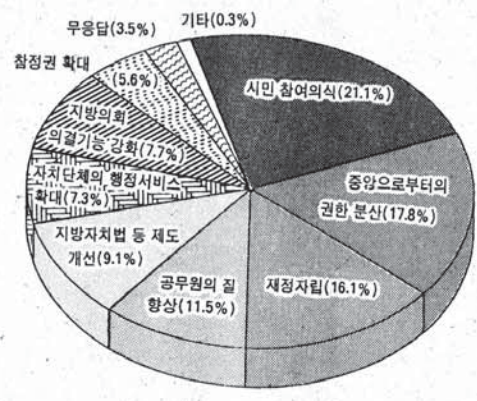
〈후보자 선정기준〉



〈4대 지방선거에서 가장 관심 갖는 분야〉



〈투표에 참가하겠는가〉



〈참된 지방자치 위한 선결 사항〉

△40~44세(25.8%) △50~54세(25%) 등으로 40대의 민선단체장
 나이가 적잖아다고 응답하고 있다.
 도의회 및 시군의회의 활동에
 대한 개인적 평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럭저럭이다(35.5%)
 △못했다(32.3%) △모르겠다(31.5%)
 △잘했다(0%)로 나타나 지방
 의원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드러나 있다.

참된 지방자치자가 이뤄지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시민참여의식(21.1%) △대중으로부터의 권한 분산(17.8%) △재정자립(16.1%) △공무원의 자질향상(11.5%) △지방자치법의 일부문제점 등 제도적 미비점 개선(9.1%) △지방회와 의결기능 강화(7.7%) △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확대(7.3%)로 나타나 시민의 적극적 참여의식이 다른 문제점보다 선결해야 할 과제로 응답했다.

현재 자신이 속한 지역의 지방의원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냐는 질문에 △모른다(55.%) △알고 있다(38.7%) △관심없다(4%)로 과반수 이상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 출마하려는 후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알고 있다(47.6%) △모른다(43.5%) △모두 알고 있다(4.8%)로 나타나 현재의 지방의원들이 앞으로 출마예정 후보도 대부분이 모른다는 응답을 함으로써 지방선거에 대해 잘 모르고 있거나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화시대에 공직사회에서 버

려야 할 점으로 △관료·권위주의(25.2%) △무사안일주의(19.5%) △형식·기회주의(17.7%) △선례답습경향(13.7%) △책임집중(13.4%) △보신주의(4.7%) △이기주의(4.7%) 등으로 나타나 무사안일한 태도로 예전의 관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은 빨리 개선돼야 할 점으로 꼽고 있다.

제주도가 미래에서 중점을 두어

아울러 사상에 대한 질문에 △지역 경제(35.5%) △지역공동체 의식(22.6%) △환경 문제(13.7%) △정 보화(11.3%) △지역문화(17.3%) △지역정치(4.8%)로 정치가 잘 돼야 한다는 의견보다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공동체 의식을 지니는 것이 앞으로 제주도가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다.

□ 지방선거에 따른 학생 유권자 의식조사 분석내용을 읽고

대다수 학생, 참된 지방자치 실현위해
시민의 참여의식 높아야 한다고 인식

요즘 백두관에 들러본 사람이라면, 때가 때이니만큼 관심을 끄는 벽보와 만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진보적 삶을 실현하는 학생모임'(이하 진학모)에서 6월27일 실시되는 4대 지방선거에 따른 학생유권자 의식을 조서하고 진학모의 시각에서 나름대로 분석한 내용이 쓰여있는 벽보다.

벽노의의 빠대, 첫째 학생
 이 지방자치 시대에 실현해야 할
 점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이며, 둘째 지방
 선거를 대하는 태도가 소극적이라
 는 것, 즉 꼭 투표하겠다는 응답률
 이 50%에 그친 점, 또한 선거과정
 의 참여유형도 선거운동원이나 자
 원봉사자 등의 직접참여보다 후보
 자 유세를 주의깊게 들켰다는 간
 접참여가 더 좋아하는 점, 셋째
 55.6%의 학생이 지방의회 의원
 가운데 이름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대답한 점, 넷째 참된 지방
자치 실현을 위해서 우선 해결해
야 할 주제로 시민참여 의식의 상
승과 중앙으로부터의 권한 분산이
실제의 본 바탕을 가진 것으로, 즉
실제로 드러나야 한다는 점, 다섯
째 지방화시대에 가장 배격해야
할 것은 관료·권위주의와 무사안
일주의라는 점이다.

진학도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왜 학생들이 선거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가에 대한 꼼꼼하고 보다 근원적인 측면의 분석보다는 학생들을 계몽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점이 마뜩잖게 생각된다. 결과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문제해결의 방법은 달라질

수 있다. 무슨 말이나면 학생들이 선거에 대해 소극적이며 정치의식 수준이 '낮게 나왔다'라는 결과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다.

4대지반선거 때까지 남은 50여 일 기간은 선거를 대하는 학생들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돌변(?)케 하고 정치의식과 열정을 넣은 단계에서, 중간정도만이라도 물리게 하는대는 내가 판단하기에 아주 짧은 기간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식이라는 건 커다란 충격이 없는 한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생들을 가르치려고만 한다면 자칫 학생들은 그 목소리만 듣기 싫은 어머니의 잔소리쯤으로 혹은 저 자식들, 선거때만 되면 댄날 저 짓이야!라고 선거에 대비한 학생회의 노력을 관행적인 세레모니로 치부해 버리다는 것이다.

내가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보고서의 네번째, 다섯번째 내용이다. 그것은 학생들이 선거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참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정치과정의 시민의 참여의식이 높아져야 하고 어떤 지방선거가 중앙의 통치로부터 벗어나 지역자치

를 실현케 하는 주춧돌이 된다는 것을 학생들이 바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뭘 말해주는가.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정치에 대한 확실적인 무관심보다 선거활동에서 나타나는 양상에 대한 회의적인 표현이라고 여긴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선거를 통해

야당의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본 짜릿함(!) 경험도 없고 선거때만 되면 학명·혈연·지연 등의 연고주의 모임들이 왕왕 형성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전근대적이고 불합리한 요인들이 무시할 수 없는 변수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어느새 내면화돼 버렸다. 그래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금권·관권을 뿌리뽑겠다는 정파의 예기가 위사(僞善)가 아닐까라고 믿지 못하는 마음어 생기는 건 어찌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도지사를 선택하는 데도 종교가 중요하게 작용해 종교싸움이 될 것이라는 언설들은 우리네 정치문화에 함축적으로 표현돼 있지 않겠는가.

여러갈래로 펼쳐놓은 말들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50여일 남지않은 4대지방선언는 많은 학생들이 바르게 알고있는 것처럼 중앙의 계획과 간섭과 통제와 명령에 의해 운영돼는 지역실업을 51만 제주도민이 주인 돼 계획·인간·실행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하다고 자주 말하면 웬지 중요함의 농도가 얼얼어버릴 것 같아 그만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다.

여대껏 이루어져온 선거활동에 대해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이 사로잡혀 정치따위는 내지 선거는 마음에 들지않는 영역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면, 문제해결의 열쇠는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개화로 오려낸 것처럼 주 원인을 제거해버리는 데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잠시울 사회 4]**

지역답사 관광지 주민들의 오늘-⑤마치며

지역조각위원회는 지금까지 총4회에 걸쳐서 지역담사의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담사를 통해 우리가 얻고자 했던 것은 크게 두가지였다.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제주도 종합발전계획에서 제시된 지역주민의 참여방안을 중심으로 지역내에서의 실질적인 참여 움직임에 알아보고, 관광과 더불어 제주지역경제의 핵심인 1차산업의 진흥방안 모색이 그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생산자조직의 조직 현황과 운영에 초점을 맞춰 담사의 내용을 채우기로 했다. 이상의 목적을 위해 총 3개 관광단지 10개 관광지구를 중심으로 담사 대상지를 선정했고 담사의 진행은 지역주민집중과 현장확인으로 이어졌다. 결론적으로 이번 담사를 평가하면서 지도와 내부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와 성과를 중심으로 담사 보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먼저 답사의 진행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면 첫째, 답사전 교육이 충실치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참가자 전원이 공유한 문제로 답사 대상지의 일반현황과 특징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 과정에서 확인하고 공유한 문제들을 바탕으로 이론과 현실 사이의 차이를 비교·보완할 수 있어야 했다. 둘째, 대안제시의 과제다. 주민참여의 문제를 그 한 예로 들면 개발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참여라는 원칙은 이제 우리들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도 모두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복된 원칙의 제시나 확인에서 한발 더 나아가 참여의 실질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 빈손으로 왔느냐란 한 주민의 지적은 바로 우리가 받아 안은 과제다. 셋째로는 답사일변에 대한 지식과 경험 부족에서 비롯된 자

민문제들을 들 수 있었다.

하지만 이상의 문제를 안고 진행된 이번 답사를 통해 얻어낸 몇 가지 소중한 성과도 있었다.

첫째, 우리가 하세에서 고민했던 제주도종합개발계획상의 문제들을 개발 대상지의 현실을 바탕으로 보다 분명히 확인했다는 것이다.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개발주체인 지역주민의 참여 의사와 구체적인 검증에 소홀히 한 결과 계획은 활자화 된 채로 자체로 끝나버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올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제주개발은 종합개발계획과는 무관하게 진행되는 조립되어 보이고 있었다. 계획에서 제시된 주민참여 방안들은 현지 주민의 참여 의사와 자본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정작 작업을 열여버린 주민은 물론 계획을 입안한 당사자를조차 그 타당성을 의심하고 있는 현실이었다.

둘째, 제주개발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확신이다. 지역개발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면 향후 제주 개발은 제주인의 삶의 토대가 되는 자연과 유·무형의 인문자원이 보존을 전제로 해야 한다. 개발을 위한 개발, 역사적으로 지속된 제주공동체 발전의 원동력인 자연과 정신의 파괴를 막지 못하는 지역 개발은 누구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지역문화의 새로운 육성은 지난 시절 무분별한 재개발과의 과정에서 파국된 재주인의 공동체적식문화 회복에 함으로써 개발과정에서 잃어버린 인간적인 삶을 다시금 모색하게 함은 물론 조상들의 전통적 삶의 방식이었던 더불어 살의 지혜를 새롭게 키우는데 1차적인 목적과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선 개발은 보존을 전제로 한다. 개발주의의 의식전환이 무엇보다 앞서 전개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법 제도적 보완과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앞서 지적

했듯이 지역문화의 육성이 단지 유·무형의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현대적으로 포장해 관광상품화를 위해 이뤄져서는 안된다. 향후 제주개발의 주된 방향이 어차피 관광개발이 될 것임을 전제한다면 제주관광이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요소는 바로 제주의 인문·사회적 환경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향후 제주개발의 최우선 과제는 지역문화의 보존과 진흥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개발주체의 의식전환이 무엇보다 앞서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했지만 이와 더불어 실질적인 재원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제주지역에 널리있는 유·무형의 문화재를 속히 발굴,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발굴된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와 전송을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와 연구소등의 설립도 필요하며 제주도종합개발계획과 같은 지역개발 정책수립 시 전문적 견해에 의해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문화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지역조사위원회)

프랑스어

프랑스어와 프랑스文化와의
만남은

알리앙스 프랑세즈에서



alliance française

'95.5.6월학기 개강: 5.1 월

BEF I II, MA I II, NSF I II III,
AP, ARC, ESP I II, 자유 회화반,
시사 뉴스반, 동시통역반, 독해작문반,
상업 무역 불어 및 비서직 학위 준비반,
비디오 시청각반, DELF-DALF 준비반

95 알리앙스 주관 시험

- DELF 시험 실시

프랑스 정부 교육성 주관하의 프랑스어
지식 및 구사 능력 학위증 발급

- 상업 무역 불어 및 비서직 학위증

프랑스 상공 회의소 주관 학위증 수여

공 학 상 단

- études en France
- voyages
- stages de langue

이제는 알리앙스 에서 직접하세요

'95. 여름학기 어학연수

séoul-centre

nam-séoul

☎ 755-4972, 5702 (중구)

☎ 555-1125, 1126 (강남)

프랑스어와 프랑스文化의 國際學校

(세계 100여개 도시에 1000여개의 알리앙스)




제8회 LG애드 대학생 광고대상

1. 응모자격

전통대학 이상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석사과정)

2. 응모과제

가. 광고논문(학업)

- 과제: 1.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 브랜드의 국내 시장 잠식에 관한 연구
2. 외국인 모델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수용태도 및 효과에 관한 연구
3. 멀티미디어 시대의 광고 접촉 실태와 대응 광고 전략
4. 국제화·세계화 시대의 기업 이미지 광고 전략
5. 국제화 브랜드 광고의 기업 이미지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6. 국제화의 영향 내재화·내재화의 부패(腐敗)·상장 기술
● 문장: 200자 원고지 80매 이내(5매 내외의 논문도 포함, 첨부 제출)
● 학교장이 표시된 원고지 사용을 금하며, 워드프로세서의 사용이 가능함
● 공동 논문의 경우 3명 이내에 한함

나. 광고작품(학업)

- 과제: LG 그룹/기업 PR, LG 전자/LG 유통/상업광고, LG 전자/PC/소프트웨어, LG 화학/유틸리티, LG 화학/비즈니스, 경매발매장/기업 PR, 나이키스포츠/아웃렛/스포츠, 대한항공/기업 PR, 동아오츠카/화이트 미니, 레고코리아/레고테크닉, 마이크로/미로팬시, 반도패션/티피코스, 베버리/베버리, 빙그레/오몰레, 시몬스침대/시몬스침대, 쌍용그룹/기업 PR, 쌍용자동차/무쏘, 진로쿠어스캐주얼/키스, 한국보안공사/CAPS, 호남정유/테크론
- 부문 및 규격
1. TV 광고: 30초용 TV-CM 스토리보드(당사 소장양식, 10~15컷, 컬러)
2. 라디오광고: 30초용 라디오 광고 녹음테이프(A4 3컷, 1컷 첨부)
3. 신문 광고: 5단×37cm 또는 8단×37cm 인쇄지(흑백 또는 컬러)
● 공동 작품의 경우 4명 이내에 한함

3. 응모마감

1995년 7월 31일 오후 6시(단, 응수시에는 마감일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4. 작품제출처

121-02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7번지 LG 마포빌딩 1층
(주)LG애드 PR팀 PR부(TEL. 705-3050, 705-2910 ~ 4)

5. 심사

가. 심사위원은 학계 및 광고계의 권위자로 위촉함
나. 전체 응모작품에 대한 예심을 실시하고, 예심 통과 작품을 대상으로 본심을 실시함

6. 입상자 발표

1995년 8월 입상자에게 개별 통지, 시보 "LG애드" 1995년 9월호에 발표

7. 시상내역

가. 광고논문

- 대 상 1등: 상장, 트로피 및 상금 200만원
2등: 상장, 트로피 및 상금 100만원
● 가 작 3등: 상장, 트로피 및 상금 각 50만원
● 입 선 1인: 상장 및 기념품

나. 광고작품

- 대 상 1등: 상장, 트로피 및 상금 200만원
2등: 상장, 트로피 및 상금 100만원
● 우수상(1인): 상장, 트로피 및 상금 100만원
● 우수상(2인): 상장, 트로피 및 상금 100만원
● 우수상(3인): 상장, 트로피 및 상금 100만원
● 가 작(1인): 상장, 트로피 및 상금 각 50만원
● 가 작(2인): 상장, 트로피 및 상금 각 50만원
● 가 작(3인): 상장, 트로피 및 상금 각 50만원
● 입 선 1인: 상장 및 기념품

8. 제출시 유의사항

- 논문부문은 원고지 5매 내외의 논문요약서를 제출해야 함다.
- 신문부문은 작품보다 시판 2cm씩 큰 흑색 우드락에 부착하여 제출해야 함다.
- TV부문은 당사 소장양식인 스토리보드에 작성, 우드락 부착 없이 제출해야 함다.
- 라디오부문은 A4 용지에 멘트 내용을 타이핑하여 함께 제출해야 함다.

9. 기 타

- 입상자가 입상에 일시를 희망하는 경우 서류접수와 면담에서 특전을 부여하며, 입상 팀당 1명에 한해 '95학년도 겨울방학 기간중 1개월간 인턴십인 자격을 부여함다.
- 응모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함다.

**전국 대학(원)생
논문현상공모**

제 7회

경전력 있는 농업육성과 농민실익 사업을 전개
하면서 세계 일류 농업조업능을 자랑하는
농업이 우리 나라 농업, 농촌발전의 관한 전국 대학(원)생
어려운들의 참신한 논문을 연상공모합니다.

1. 응모자격: 전국 4년제 대학(원) 재학생
2. 논 제: 다음 4개 중 택일

- WTO 체제하의 한국농업의 진로와 과제
- 개방화 시대의 농업금융 활성화 와 발전방향
- 우리 나라 전통식품의 산업화 현황과 과제
(전통가공식품 마케팅 활성화 방안 포함)
- 농촌지역의 문화·복지사업의 효율적 전개방안

3. 응모요령:

- 응모매수: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의 분량
- 작성요령: A4 용지에 워드프로에서 이용 작성
(요약문 2~3매 첨부)
- 제출처: 농협중앙회 문화홍보부
대학생논문현상공모 담당자 앞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 1가 75번지 우편번호 100-707)

4. 응모마감: '95. 9. 30 (단일 우체국 소인분 유효)

5. 입상자 발표: '95. 11. 1
(개별통지 및 농민신문 게재)

6. 시 상

- 최우수작 (1명) 상금 200만원과 상패
- 우수작 (2명) 상금 각 100만원과 상패
- 가작 (5명) 상금 각 50만원과 상패

7. 기 타

- 응모논문은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 논문표지에 주소, 전화번호를 명기하고
제학증명서 1통을 첨부 제출해야 함.
- 응모논문은 반환하지 않으며,
입상작의 저작권은 농협에 귀속됨.
- 자세한 사항은 문화홍보부
(02/397-5654)로 문의바람.

농 협

아라포럼 제총협 진로를 생각한다

이념지향적·분파적활동등 반성 절실
변화에 대한 모색·실험을 과감히 전개해야

제주지역 학생운동의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제총협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은 무엇인가? 현재 이 물음에 대한 정답을 정확히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학생운동의 운동대상인 대학을 포함한 사회전반은 과거와 달리 발전을 거듭하며 급속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정부적 정치활동과 사회주의 운동으로 대표되는 80년대 학생운동은 사회주의 실험의 실패와 문민정부 등장으로 인한 절차적 민주주의의 점진적 확보로 그 명분과 생명력이 다해가고 있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80년대 한국사회의 학생운동은 화려한 족적을 남기기는 했지만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할 시점이라고도 한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학생운동과 결별을 고하며 취업준비나 고시공부 등으로 각자의 발길을 돌리고 있다. 이제 과거의 경험과 업적은 순자리에서의 추억거리 내지 무용담으로 전락하고 있다.

과거의 운동이 대체 어떠한가에 학생운동가들은 좌절하고. 그들의 동지를 떠나는가? 바로 이 점이 새로운 학생운동의 시작을 선언하며 나아가야 할 제총협이 풀어야 할 제일 처음의 문제이다.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지난날의 운동을 찬찬히 살펴봐야만 한다.



송창원

7,80년대의 운동이 정의에 대한 열정으로 시작되었으며 살신성인하는 자기희생의 자세와 투철한 세계관으로 억압과 기만이 만연하던 시대에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과거를 평가하고 비판하여 과거와의 분리를 통해 제총협의 출발을 선언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과거의 운동이 갖고 있는 부정성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운동은 여타의 밝은 모습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과거의 운동성과 노선의 차이에 따른 분열, 패권주의적 조직활동으로 운동의 본래적 의의와 명분을 감아먹어서 급기야는 운동에 참여하는 개개인을 흑백논리적으로 독단화시키고 스스로를 소외시켜 사회운동의 본래적 의미마저 부정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오류를 범

하였다.

우리의 운동전진이 이렇듯 모순의 집결지로 빠져들 때 우리를 둘러싼 세계는 우리가 대응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변화했다. 90년대에 이르러 세계는 급속한 변화를 보이며 움직이고 있다.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로 인한 냉전구조의 와해와 자본주의의 전지구적 전면화로 인하여 기존에 우리가 경험했던 세계와는 다른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기존의 경험과 지식만을 가지고는 더이상 이 사회의 진보를 이루어내지 못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당신의 경쟁상대는 어느나라 누구입니까?'라는 텔레비전의 광고에서 극명하게 느낄 수 있듯이 우리는 지금 무한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다. 각각의 국가들은 국가경쟁력이란 가치 아래 정부조직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만들기 위한 개혁을 시행하고 있고 기업들 역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보다 합리적인 생산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한국 사회 역시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한가지 예로 행정부를 들 수 있는데, 김영삼정부의 사정활동이나 각종 제도개혁과 개선이 정치적 숙명이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개혁이 아니라는 비판이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갖고 있지만 행정부가 내세운 세계화나

지방화라는 슬로건이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를 갖는 것은 바로 90년대 이후 변화되는 국제환경 및 사회환경에 나름대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조직 뿐만 아니라 기업조직, 정치조직, 사회운동조직들 모두가 이렇게 나름대로의 변화를 예기하고 변화에 대처하고 있는 현실이다. 변화의 뒤풍무늬를 가까스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선두에서 주도해나가야 하는 것이 학생운동의 임무이자 사명이라고 할 때 제총협이 변화에 대한 모색과 실험을 과감하게 전개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제총협이 과거 운동의 성과로 형성되었던 객관적인 사회의식과 정보운동의 운동적 에너지를 올바르게 이어받고 과거 운동이 이룩해내지 못했던 개개인의 자발성과 참여의 욕을 고취시키는, 바로 이러한 운동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때 그것이야말로 과거운동의 성과를 올바르게 이어받고 그 한계를 극복하는 일일 것이다. 과거의 이념지향적이고 분파적인 제총협활동이 아닌 새로운 학생운동으로서 제총협의 활동은 새로운 관점으로 무장해야 한다. 그 출발은 바로 개인으로서의 인간을 사고의 중심에 놓고 그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그리하여 개개인이 조직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만족감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운동, 결론적으로 개인의 이기성을 전제로 하면서도 이타성을 기워내고 이러한 운동적 에너지를 통하여 사회의 진보에 기여하는 운동을 제총협의 조직운동에서 실천하여야 하는 것이다.

총학생회장 행정4

체질혁신은 간부부터... 즉흥적 결정은 금물
청년학생다운 패기·진취적 자세 견지를

"1만4천의 청년학생들 펼쳐 일 어선 길에는 제총협의 깃발이..." 제총협 전군가의 첫부분이다. 어려운 시기에는 선두에 서서 불의에 대항해 싸웠으며, 탐라순례대행진·농촌봉사활동등을 통해서 도민들과 직접 만나면서 어려움을 함께 해온 제총협. 89년 제1기를 시작으로 올해 7기째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지금 시대가 변함에 따라 제총협도 이제는 변화해야 할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에 제총협이 앞으로 나아가갈 방향을 제고해 본다.

첫째, 제총협은 제주지역 청년학생들의 조직이므로 청년학생다운 패기와 진취적인 자세를 모든 사업에서 잊지말아야 하겠다. 이것이 내가 제총협 1만4천을 책임지는 대종간부들에게 가장 하고픈 말이

다. 내가 생각할 때 청년학생들은 모든 일을 능수능란하게 처리할 수 없다. 무슨 일을 하든 운동 뒤 축박적인 경우가 왕왕하고 그나마 서로가 잘 해보려고 머리를 맞대고 치열한 고민을 하곤 한다. 그러나 사색과 고민의 생활과 내용이 청년학생다운 특성들을 함양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짧은 고민이지만 실천을 결심하고 뚜렷히는 자세속에서 다시 한번 겸허하게 비판·평가하는 모습, 우물쭈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돌파해보려는 자세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모든 일은 시기적으로 적절한 때가 있는 법이다. 얼마나 사전에 착실히 준비하느냐에 따라 때를 포착하여 적절히 대응하는가 관건인 것이다. 우선 청년학생들 또한 좀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준비한 내용에 대한 평가는 때를 놓치지 않는 실천 속에서만 가능하리라 본다. 만일 모든 게 제대로 잘 안된다 치자. 물론 욕을 들을 수도 있을 것이다. 바로 그때 여러



홍상범

분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청년학생다운 고민과 실천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리라 본다. 나의 문제의식은 학생들은 천재가 아니라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는가라는 것이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년학생다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제총협 1만4천을 책임지는 대종간부들에게 가장 하고픈 말이

다. 내가 생각할 때 청년학생들은 모든 일을 능수능란하게 처리할 수 없다. 무슨 일을 하든 운동 뒤 축박적인 경우가 왕왕하고 그나마 서로가 잘 해보려고 머리를 맞대고 치열한 고민을 하곤 한다. 그러나 사색과 고민의 생활과 내용이 청년학생다운 특성들을 함양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짧은 고민이지만 실천을 결심하고 뚜렷히는 자세속에서 다시 한번 겸허하게 비판·평가하는 모습, 우물쭈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돌파해보려는 자세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모든 일은 시기적으로 적절한 때가 있는 법이다. 얼마나 사전에 착실히 준비하느냐에 따라 때를 포착하여 적절히 대응하는가 관건인 것이다. 우선 청년학생들 또한 좀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준비한 내용에 대한 평가는 때를 놓치지 않는 실천 속에서만 가능하리라 본다. 만일 모든 게 제대로 잘 안된다 치자. 물론 욕을 들을 수도 있을 것이다. 바로 그때 여러

러는 노력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야만 좀더 시야를 넓게 할 수 있고 균형을 잡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총협의 변화와 발전 또한 우리 대종간부들의 학우들과 만남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참된 의미를 알았을 때 스스로 거듭나게 되고 성장·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우리 제총협 대종간부들은 감의를 이점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가는 모습을 본다. 이렇게 학우들과의 부딪침, 만남의 기회는 더욱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겠으나 작은 고비를 넘기면 서로가 가슴을 트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우리들의 신념과 의지를 중심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려는 자세가 있으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는 아니지만 거대한 변화의 수레바퀴는 움직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조금만 더 "그래 결심했어"식의 원칙과 중심이 없는 즉흥적이고 감각적인 자세를 결코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바로 그 순간 개량으로의 진입이고 편향으로 가는 것임을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식대로 하자 하여 자기중심적인 고민을 하는 것도 문제이며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도 주저하면 역시 시기를 놓치는 것이다. 그래서 고칠 것은 과감히 스스로 개혁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예전에 했었던 것이 그 당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고 최선의 결정이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최선의 자세로 준비하자는 것이 나의 입장이다. 제총협의 슬기로 거듭 변화하고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92년부총학생회장 화학4

기획
연재

부서별 사업계획을 듣는다

연한 계획으로 안일한 행정을 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등. 본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과연 우리대학내의 주요부서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사업계획 및 업무를 중심으로 각 부서를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각 부서에서 발표한 사업계획들의 실천여부도 공개할 계획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우리 대학내의 각종 부서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지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과연 ○○부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나? 대학발전에 역행하는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구태의연한 계획으로 안일한 행정을 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등. 본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과연 우리대학내의 주요부서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사업계획 및 업무를 중심으로 각 부서를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각 부서에서 발표한 사업계획들의 실천여부도 공개할 계획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유은이 씀)

교수계획서·수강편람 내용보완

4월중 교양동 세미나실에 대형비디오비전 설치

수업과

수업과(과장 김명섭)는 수업시간표 작성 및 관리, 학점 및 성적 관리, 특별강좌 운영 등 수업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부서이다.

올해 수업과의 중점사업은 수업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로, 수업교과의 국제화를 위한 교육매체를 제공하고 수업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세부계획을 보면 △4월중 교양강의동 세미나실에 대형 비디오비전 설치 △전체강의실(120실)에 자동분필필기기 설치 △침판·교탁 보수 및 교체 △한계 교양강의실로 사용하고 있는 인문대 강의실 3개, 법대 강의실 2개, 경상대 강의실 3개에 1학기중에 엠프 및 마이크를 설치할 예정이다.

둘째로 재학생들의 수강신청 편의 등을 위해 지난해부터 폐내고 있는 '수강편람' 및 '교수계획서 합본'을 좀더 체계화하여 발간할

계획중에 있다.

수업과에서는 『2학기 수강편람』의 내용을 좀더 보완하여 오는 5월중에 발간할 예정이고 발간부수 또한 작년보다 1백부 더 늘어난 5백부를 발간할 방침이다. 아울러 『2학기 교수계획서 합본』 발간시에는 교양과목 담당교수들의 협조를 얻어 성적평가방법 및 교과목에 대한 교수요목을 보다 상세히 수록할 계획이라고 한다. 수업과에서는 이 책을 수강신청 기간전에 2백부를 발간하여 각 학과 사무실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셋째로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식견을 넓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학술분야의 저명인사를 초청, 1학기중에 모두 61개의 특별강의를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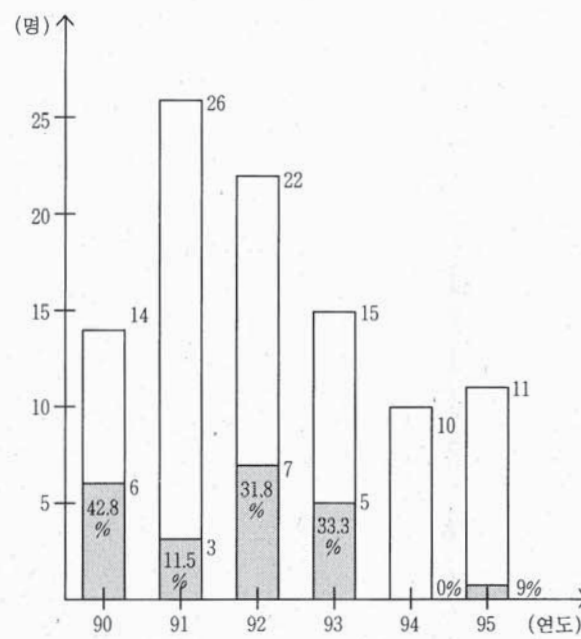
넷째로 수강신청의 잘못으로 불필요하게 수강과목을 변경하거나, 졸업학점 부족으로 인해 졸업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단과대학 및 학과에서 수강신청시 사전지도도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휴·결강시 반드시 보

강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출석부 관리에도 신경을 써서 면학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등의 일을 지속적으로 시행해가 된다. 그러나 수업과 김천근계장은 "이번 행정조직 개편과정에서 수

업과 인원을 감축해 버린 관계로 현재 수업과의 업무량이 해마다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과 계장을 제외한 직원이 한명밖에 배치돼 있지 않아 인력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實)

◇그림으로 보는 뉴스



◇90년~95년 신규임용교수 중 본교 출신 교수.
(단, 빗금친 부분은 우리대학 출신임)

업사회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 사회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현재적 함의를, 논의함으로써 그 시대의 주역이 될 오늘날의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수가 준비한 주제들을 강의한 후 참고교재를 통해 각 내용들에 대한 요약 및 비판적 의견을 레포트로 제출하고 이 제출된 레포트를 가지고 세미나를통해 서로 토론하는 방식으로 강의가 진행된다.

이런 수업내용에 맞춰 ▲사회구성원리·사회구조의 차원에서 미래 사회의 탐구를 위한 시각 고찰 ▲사회구성원의 원리와 구조변동 ▲원시·고대·중세·현대산업사회의 거쳐 미래사회의 출현과정을 살펴보고 ▲문화비평과 인류학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취재부)

21세기 제주농업연구회 창립총회 개최

제주농업과 농촌문제 해결에 노력

21세기 제주농업연구회(공동대표 김지용 농업경제학과 교수·김세중 세립주식회사 대표이사)에서 지난 4월1일 자연대 세미나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 연구회 정관과 의결하고 회장단을 구성하여 이한편 제주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는 농과대학 교수, 농업관련기관, 농어민 후계자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부로 나뉘어 진행됐는데 1부 창립총회는 △내빈소개 △경과보고 △개회사 △정관심 의결 △회장단 선출 순으로 진행됐고, 2부 변화와 개혁의 신농정인 주제로 최양부(청와대 농수산부) 특별강연, 3부 △창립기념 축하 순으로 각각 행해졌다. '세계화, 개방화의 원인을 맞아 제주농업과 농촌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결성된 21세기 제주농업연구회는 △회장=김지용(농업경제학과 교수)·김세중(세립주식회사 대표) △부회장=강인선(농어민후계자 제주도지부 회장) 신인준(한림농협조합장) 이한편(한국산업사 대표) 오승일(남제주군 의회 의원) △감사=고문삼(전 농어민후계자 제주도지부 회장) 이복만(제주시 의회 의원) 씨 등을 선출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 초청된 최양부(청와대 농정담당수석) 박사는 변화와 개혁의 신농정이란 주제강연을 통해 "신농정이 추구하는 경제농을 위한 변화와 개혁은 농민들이 이대로는 안된다는 자기혁신에 의한 새로운 각오와 자발적 참여, 그리고 국민적 이해와 협조"라고 밝혔다.



◇지난 4월1일 자연대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21세기 제주농업연구회' 창립총회 모습.

독일어 특별연수 실시

7월17일부터 25일까지

독어독문학과(학과장 송성희 부교수)에서는 독일 본 대학의 Sprachlernzentrum(어학연수원)과 공동주관으로 하계방학기간에 독일어 특별연수를 우리대학에서

실시한다.

오는 95년 7월17일부터 8월12일까지(일요일 제외)실시되는 이번 연수에는 △초급독일어Ⅰ △중급독일어Ⅰ △중급독일어Ⅱ △고급독일어Ⅰ △고급독일어Ⅱ △실무독일어Ⅰ △실무독일어Ⅱ 등 8개의 강좌가 개설되는데, 각반 수강인원은 20명 이

내이고 강의는 독일 본 대학교 Sprachlernzentrum의 Dr. Kummer, Dr. Faulhaber교수들이 직접 맡게 된다.

수강비용은 32만원이며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오는 4월17일까지 독어독문학과 사무실로 접수하면 된다.

4·3관련 슬라이드 상영

지조위, 30~31일

지역조사위원회(위원장 김대영 영문 3)에서는 4·3항쟁 47주기를 맞아 지난 3월30·31일 양일간 백두관 시청각실에서 4·3관련 슬라이드 상영했다.

학우들에게 4·3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지조위에서는 4·3항쟁을 주제로 그린 강요배 화백의 그림 및 4·3당시 기록사진 1백50여장으로 편집된 4·3슬라이드 약35분간 상영했다.

△교수동정

▲최치규(물리학과)교수=지난 3월3일부터 4일까지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제3연구동 소강당에서 열린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주최 '차세대 반도체 기술 교류회'에 참석 ▲전오규(농학과)교수=지난 3월29일 서울에서 열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평의회에 참석 ▲김희석(수의학과)교수=지난 3월31일부터 4월2일까지 서울대에서 열린 수의학 교수협의회에 참석

▲강정우(과학교육과)교수=지난 3월22일 전국 국립 사립대학 과학교육연구소 주최로 서울대 교수회관 제3회의실에서 열린 '과학 교사 양성'에 임용제도에 관한 학술 세미나에 참석, 또한 23일 사단법인 한국 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 주최로 서울 하림각에서 열린 '지역 과학 교육단체 연합회 결성 준비회' 및 제3회 학생 과학 탐구 올림픽대회 설명회에 참석

▲권기린(부속공공장·기계공학과)교수=지난 3월30일부터 4월2일까지 공대부속공학장기비문 및 건축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수집을 위해 대전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소·부산수산대학 공대부속공학·창원대학 공대공공실험실을 방문함

폐교교과목 소개

현대 민주주의론

이 교과목은 민주주의의 본질과 특징에 대한 이념적·제도적인 고찰을 통하여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우리사회가 모색하는 좌표를 스스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구에서 발효한 민주주의의 본질을 서양 정치가들의 이론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며, 이러한 이론의 검토위에서 현대민주주의의 여러 문제점과 영국·미국 등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체제를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제3세계와 한국에서의 민주주의 발전과제를 조망하게 된다.

95년 1학기에 4백75개의 교양교과목중 30개의 과목이 폐강됐다. 당국의 노력에 의해 폐교교과목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있지만 선풍들의 조연이 수강신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에서는 폐강되는 교과목은 매학기 폐강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본사에서는 이런 결과들이 흑 일부 교과목에 대한 정보부재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은 아닐까 하여 계속 폐강(주간기준)되는 교양교과목을 소개하는 단을 마련했다. 다음 학기 수강신청을 하는데 학우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

(유은이 씀)

이러한 기본틀을 바탕으로 ▲정치이데올로기들의 개념, 기능, 유형 ▲민주주의의 개념과 기본 가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민주주의관 및 국가론을 통해 본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의 제도적 특징과 한계 ▲근대 민주주의의 원리 ▲현대 민주주의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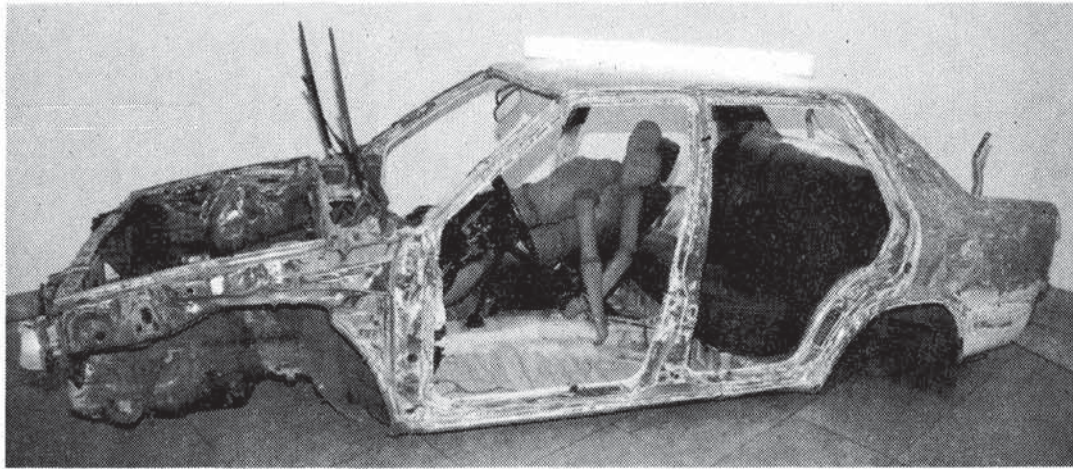
다원주의 참여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의 순으로 강의가 진행된다.

미래 사회의 탐구

이 교과목은 현대 산업사회이후 도래하는 정보사회 혹은 후기 산

'미술의 해' 기획 연재 영상시대의 미술읽기-뉴미디어·영상·미술

미술영역, 일상 전영역으로 확대 뉴미디어가 예술에 대한 인식 바꿔놔



◇ 후기자본주의 사회로 진입하면서 미술의 영역은 첨단 기술의 영역과 떼어 놓을 수 없는 상관관계를 유지한다.

현실은 종이와 문자의 시대에서 영상과 이미지의 시대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또한 그 영역은 소위 뉴미디어의 출현과 동시에 폭넓게 일상의 공간으로 파고들고 있다.

우리사회는 인간생활에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행위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를 끊임없이 등장시키고 있다. 이러한 뉴미디어는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라고 규정되는 고도화된 기술적 발전이 인간커뮤니케이션 형태를 변화시키면서 가능해진 것이다.

쉽게 말하여 뉴미디어 영역은 다음 세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째가 개인 커뮤니케이션 영역이다. 개인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우편(Email)에서는 공간이나 시간을 넘나드는 관계 속에서 동시적 혹은 비동시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행위가 이루어진다. 전자우편 사용자들은 네트워크 안에서 마음대로 메시지를 교환하고 저장하고 복사할 수 있다. 개인의 정보수집 능력이나 커뮤니케이션 행위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확대되고 있다.

두번째로는 집단커뮤니케이션에서의 뉴미디어 분야에서는 대체로 통신회의(Teleconferencing)가 주목을 끌고 있다. 음성회의·영상회의·컴퓨터회의를 통하면 시간과 공간에 구애됨이 없이 그룹간 정보교환 및 의사결정 등이 편리하다. 일례로 영상회의는 음성과 영상을 겸비한 통신회의로 비디오 카메라에 의해 포착된 영상이 상대방에게 전송되어야만 가능하다. 영상회의에는 움직이는 화면을 보여주는 풀 모션(full-motion)과 정지된 동작으로 보여주는 스틸 피쳐(still picture)방식이 있다. 이러한 영상전달 시스템은 음성전송 장치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비디오 카메라가 담아내는 인물과 토론내용을 동시에 전송할 수 있다.

세번째로 방송영역에서의 뉴미디어의 활용이다. 케이블TV뿐만 아니라 직접위성방송(DBS: Direct Broadcasting System)등이 여기에 속한다. 케이블TV는 현재 가장 대중적이고 인기있는 매체로써 쉽게 접할 수 있으면서도 오락적인 기능까지 뛰어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한다. 케이블TV는 뉴스, 교육, 정보, 영화, 음악, 스포츠 등 유료가입자를 대상으로 24시간 공급하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생생하게 즐길 수 있다.

뉴미디어의 발달은 영상커뮤니케이션의 생생한 전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상예술의 한 분야로서 영화 또한 과학기술의 직접적인 영향 속에서 이루어진다. 빛의 예술이라는 영상예술은 나름의 미학적 토대를 가지면서 인류를 사로잡고 있다.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예술로서의 영상예술은 특수촬영, 다양한 편집기술, 독특한 구성, 시공간적으로 넓어진 소재로 인해 어느 예술장르보다도 더욱 호소력이 있고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영화예술이 아닌 미술영역으로 분류되는 영상작업으로는 소위 비디오 아트는 장르가 있다. 이 비디오 아트의 시초는 1965년에 한국 태생의 '플럭서스'미술가 백남준이 쏘니 휴대용 비디오카메라를 사용해 제작한 비디오 작품을 바로 몇 시간 뒤 뉴욕의 그리니치 빌리지에 있는 카페 아 고고(Cafe a Go Go)에서 상영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후 비디오 아트는 엄청날 정도로 다양해졌다. 많은 미술가들이 이러한 비디오 아트를 설치미술이나 퍼포먼스 아트에 응용하기 시작했고 그 소재도 정치적인 것에서부터 문명 비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때로는 대중문화에 편승하는 작품까지 등장한다. 이

비디오 아트는 하이테크미술이라는 경계를 넘나들면서 과학기술의 힘을 활용해 오고 있고, 후기자본주의 사회로 진입하면서 이러한 미술의 영역은 첨단 기술의 영역과 떼어놓을 수 없는 상관관계를 유지한다.

복잡해지는 것과 동시에 영상에

술에서도 미술의 비중이 더욱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다. 직접적으로 많은 영화들이 미술적인 구도와 동세, 색채, 구성적인 테크닉을 활용하여 카메라 앵글을 잡고 있다. 한국에서도 최근 들어 미대출신의 영화감독이 등장하고 화가와 미술평론가에 의한 미술감독, 고종 등 미술관련 전문가들이 직접적 개입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보면 푸른 색 주조의 색채디자인적인 구성으로 성공한 이현승 감독의 〈그대안의 블루〉같은 영화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푸른 색채를 통하여 중국의 민족성을 강하게 드러내준 장예모의 〈붉은 수수밭〉의 미술적 깊이는 단지 영상기술만으로 이를 수 없는 어떤 내용을 보여준다. 그리고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더라도 이러한 예를 쉽게 만날 수 있다. 우리에게 몽타주 기법의 창시자로 잘 알려진 에이전트 제인의 〈바보이반〉에서 보여준 미술적 테크닉은 칼라영상 이전의 맛깔있는 미

술의 모습을 담아낸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만화영화에서는 미술의 활용이 더욱 극대화된다. 여기에서는 이제 미술이 보조수단이 아니라 미술이 주를 이룬다. 거기에선 회화적인 요소와 그래픽적인 요소, 조형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개성적으로 분별해진다. 그리고 만화영화의 꽃이라고 부를 수 있는 캐릭터는 어쩌면 만화매체가 갖는 최고의 성공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미술의 영역이 이제 일상의 전 영역을 사로잡고 있다. 결론지어 말한다면 예술로서의 미술의 경계 영역이 일상의 거리를 점차 무너뜨리고 있고, 순수예술이라는 고급예술적인 영역 또한 대중적으로 그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곧 예술의 발전은 아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예술의 영역은 실로 일상공간에 개입하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하이테크놀로지에 힘입어 작용하는 이러한 미술의 일상적 개입은 함부로 저속한 어떤 것으로 치부할 담력을 없게 만들었다. 독점자본주의사회가 첨단기술의 시대로 진입하면서 예술의 개념은 달라지고 있다. 이제 이것은 영상예술이나 미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 전영역의 뜨거운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김유정 (동문·미술평론가)

영화평 렉 베송감독의 '레옹'

구조적 불완전성으로 영상미도 흐려져

1. 들어가며

1980년대 '누벨 이마주'(Nouvelle image), 1980년대 프랑스에서 렉 베송 장 자크 베네, 레오 까락스 등의 감독에게서 보이는 신선한 영상을 말한다. '새로운 영상'이라는 뜻)라는 작가군으로, 칭송받던 렉 베송은 〈마지막 전투〉(82), 〈지하철〉(84), 〈커다란 청색〉(87), 〈니키타〉(90), 〈아틀란티스〉(91) 이후 다시 우리를 스크린 앞에 앉혀 놓았다.

그의 작품에서 두드러지는 독특한 인물설정, 헐리우드 감각과 프랑스식 영상 감각의 조화가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는 충분조건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90년대 후반들어 누벨 이마주는 새로운 한계에 봉착했다.

그 한계는 무엇이며 극복 방안과 대체적 전망은 과연 무엇인가? 위 질문에 영화 고유의 영상언어와 기법을 통하여 작품을 분석하는 아카데미 비평 양식의 채용으로, 렉 베송 감독의 영상 미학을 해체시키고 재해석함이 옳을 듯 싶다.



2. 헐리우드 인습과 직감적 영상 미학의 상징

(레옹)에서 고전적 헐리우드 갱 영화의 인습인 소영웅주의 결말양식의 진부함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을 역행하지 않는 연대기적 플롯 또한 관습성을 띠고 있다.

반면에,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의 (8 1/2)에서 현실, 꿈과 환상의 플롯은 우리에게 화면 물질이라는 부수물을 주었다. 레옹과 마약단속반 반장으로 대비되는 선과 악의

확실한 구분 또한 진부(陳腐)한 헐리우드의 인습을 보여준다.

도입부에서 카메라는 바다와 숲을 지나 도심속의 식당으로 빨리 들어간다. 사건이 끝났고 동시에 카메라는 숲과 바다를 지나간다. 여기서 관객의 수동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메카니즘과 레옹의 영혼이 안식처로 향하는 여정을 나타내는 장면임을 알 수 있다.

도입부에서 눈, 입, 담배를, 검은 색안경, 그리고 유유를 각각 단일 화면에 최근접 화면 찍기(extreme-close-up, 어떤 한 특정

◇ 렉 베송의 작품은 헐리우드 감각과 프랑스식 영상 감각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부분을 확대하여 하나의 화면을 꽉 채워내는 카메라 기법)로 잡아내는 것과 레옹에게서 갱 두목이 협박받는 장면에서 직접 카메라를 들고 찍는 기법(hand-held camera, 글자 그대로, 손에 카메라를 들고 찍는 기법)으로, 대부분의 영화에서는 카메라를 삼각대에 세워 안정감있게 찍어낸다) 사용은 무엇을 뜻한인가? 전자에서는 강렬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한 레옹의 성격 규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후자에서는 흔들리는 화면에서 갱 두목의 불안 심리를 극대화하는 한편 관객에게는 긴장감을 유도하는 다중 효과를 노리고 있다. 또한, 갱 두목이 레옹에게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암시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감독은 그런 관객의 의도를 묵살한다.) 후반부 레옹이 죽는 장면에서, 하얗게 탈색

되는 화면으로부터 감독이 요구하는 '죽음'의 미학과 우유빛같은 순수함을 향한 레옹의 영혼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다음 화면의 천둥과 비는 너무 비약적이지 않은가?

3. 니오메-90년대 후반 누벨 이마주의 한계와 전망

누벨 이마주 이후 감독들에 의한 모방과 재해석으로 발전한 영상 홍수 속에서 렉 베송의 영상은 자기 정체성에 빠지고 말았다. 어느 감독에게서나 찾을 수 있는 영상 기법으로는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완벽한 틀(구조적 형식)만이 그 속의 내용물(메카니즘 표현)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전망을 대신할 따름이다.

송중철(물리3)

동문발언대 다리걸기보다 위로와 격려를



박희수

민속경기인 씨름의 기술중에 다리걸기 기술이 있다. '안다리걸기' '바깥다리걸기' '호미걸기' 등 다리를 걸어 상대를 쓰러뜨리는 절묘한 기술과 쓰러지지 않으려

바둥대는 선수와 더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스티를 느끼기에 충분하다. 관객의 몰입과 더불어 주먹구구식의 현대화, 도시화등 시공을 초월한 급격한 생활의 형태변화가 우리땅 제주를 지배하고 있는 오늘, 우리는 또 새로운 아픔을 느끼고 있다. 필자의 주변머리 없는 사고에서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여기 저기서 벌어지는 다리걸기를 보게 된다. 물론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가는 범인의 다리걸기는 '용감한 시민'으로 표창을 주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주변의 친구가 이웃이 무언가 시작해서 좀 된다 싶으면 열심히 뛰는 선수의 다리를 걸어 넘어지는 꼴을 봐야 속이 시원한 분들도 적잖이 있는 듯 싶다. 그런데 그런분들에게는 특성이 있다. '감자'에는 약하고 약자에는 강함'으로 이쁘지 못한 특성을 갖고 있다. 또 그들은 별로 할일이 없다. 자기밥그릇 챙기고 남는 시간은 이웃의 밥그릇 챙겨주기보다 속된 표현으로 쪽박 깎 일을 찾아 나선다. 또 그들은 용기가 없다. 비겁하다. 앞에 나서서 표현하지 않고 뒤에서 중얼거린다. 그러다가 앞에 나선 사람이 행여 실수라도 할라치면 위로하고 격려하기보다 그것 보라며 박수치고 웃어댄다. 이 선수들이 바로 씨름판이 아닌 우리 사회의 다리걸기 선수들이다. 이분들이 가보아야 할 곳이 있다. 새벽 두시삼십분 우리의 주당(酒堂)들이 '한잔더'를 외치며 해매는 시간 제주도의 최고 중심지 중앙로 거리는 실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느끼게 하는 장엄하고 숭고한 행렬이 시작된다.

도내 각지에서 달려온 우리의 형제들이 흥내를 품기며 아예를 운반하고 땀을 닦는 그곳이야말로 '다리걸기' 선수들이 가보아야 할 곳이다. 그곳에서 두세시간만 서있다 보면 상당의 종소리가, 사찰의 북소리가 은은히 들려오고 조금 된 사람이 될 선수들에게는 무엇인가 의미를 던져 줄 것이다.

급변하고 있다. 틀림없이 급변하고 있다. 캠퍼스를 오가는 젊은 지성들의 모양새부터 이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게 숨가쁘게 변화해 가고 있다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내가 지금 어디에 서있는지조차도 놓치게 된다. 이 바쁜 시기에 이제는 서로 달릴 수 있도록 하자. '다리걸기'는 그만하자. 옆집 선수가 넘어지지 말고 잘 달릴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자. 혹시 깨진 유리, 장애가 될 줄이라도 있으면 얼른 치워주자. 그래야 다음에 우리가 달릴때 그들도 도와 줄 것이다. 제주도는 좁다. 말이 많다고 한다. 많아도 된다. 좋은말만 남긴다면 오늘 내리는 이 비가 우리마음의 불순한 찌꺼기를 씻어간다면 우리 대학은, 우리 제주도는 틀림없는 낙원이고 고향일 것이다.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법학과 88년 졸)

POSCO 메세지 대동제천



가슴 가득, 달덩이처럼 벅찬 환희를 안고

씻은듯 맑은 봄, 서둘러 축제의
뜨락으로 나서자.
분수처럼 치오르는 가슴.
봄의 대지엔 열병하는 아지랑이.
이성도, 회의도, 사랑도 ... 가슴에
묻어 두었던 모든 것을 쏟아 외치면,
우리의 함성은 천리를 간다.
정열은 하늘 끝까지 치솟는다.
저 달에 악보를 그려 부르는 축제의 서곡,
얼큰한 막걸리 한주발에도
오색깃발은 휘둘거린다.
오늘은 젊음의 해방기 -
눈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 없는,
가슴에 벅차오르는 기쁨을 참을 수 없는
아 - 젊음의 축제여!

포항제철